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2014.12.23) (회장)

포 상(최대 8개까지)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2017년 4월	보건복지부 '제45회 보건의 날' 황조근정훈장	2014년 12월	유권자시민행동 선정 2014 국정감사 최우수상
2013-2016	국회 종합헌정대상	2012-2014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2016년 2월	국회도서관 이용(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 최우수 국회의원상	2013년 7월	Nurse Researcher Hall of Fame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Honor Society of Nursing)
2015년 12월	국회 사무처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의원'	2011년 6월	IIQ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Qualitative Methodology) International Leadership in QHR 2011 Award
후보직 출마에 대한 소견			
<p>존경하는 대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회원 여러분! 제37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한 신경림입니다.</p> <p>지난 32대와 33대 대한간호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세계 최초로 간호교육학제의 4년 일원화를 실현하였고,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4년 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환자안전법 제정과 함께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의료법을 개정하여, 간호보조인력의 도전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크게 제고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p> <p>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대학이 4년제로 전환되지 못하였고,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의료법 하위법령에는 지금도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충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에서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간호보조인력 명칭 변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사 인력 축소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p> <p>물이 고이면 썩게 되듯이 혁신을 중단하고 안주해 버리거나, 대한간호협회와 지부, 간호사 회원, 보건의료단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튼튼한 연대를 구축하는데 소홀해지면, 간호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꿈꿀 수 없게 됩니다.</p> <p>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다시 이 자리에 선 만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혁신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p> <p>우리 제37대 회장단후보는 수많은 간호정책 과제와 협회의 혁신을 대의원님, 그리고 회원님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그 실타래를 풀어나가겠습니다.</p> <p>대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37대 회장단은 혼신을 다해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의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